

# 동구 평균 휘발유값 광주 첫 2000원 돌파

### 광주 1967원·전남1968원...7주연속 올라

### 나주 1945원 가장 저렴...유가 당분간 상승

광주 동구지역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이 2월 20일 2000원을 돌파했다. 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도 6주 연속 상승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포넷에 따르면 광주 동구지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은 2월 2002원을 기록하며 광주지역 최초로 평균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었다.

이날 광주지역 평균 휘발유 값은 7주 연속 상승하면서 2월 20일 1967원, 전남은 1968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는 지난해 11월 첫째주 광주가 1984원, 전남이 1981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월 2일 1893원을 찍은 후 같은 달 29일(0.01원), 이달 5일(0.1원)과 9일(0.15원) 소폭 하락했던 것을 제외하면 45일 동안 꾸준히 올라 역대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광주지역 자치구별 2월 평균 휘발유 값은 북구가 1970원, 광산구와 서구가 1963원, 남구 1957원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에서 휘발유 값이 2000원이 넘는 주유소는 모두 9곳으로 이중 동구에만 8곳이 집중됐다.

전남의 경우 구례가 2월 휘발유 값이 1991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나주가 2월 1945원으로 휘발유 값이 가장 저렴했다. 휘발유 값이 2000원이 넘는 주유소도 광양 4곳, 목포 3곳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용 경유도 6주 연속 오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는 2월 셋째주 현재 1963원을, 전남은 1964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기름값 고공행진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17.45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지난해 5월 3일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유가가 초강세를 이어가자 국제 석유제품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국제 원유시장에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유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란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두바이유가 역대 최고치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 증권·호텔·레저·유통 등 유망 코스피 조정시 주식 더 늘려야

KOSPI가 2000선에 안착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 겹을 동반한 반등으로 2000선을 단숨에 회복했고, 외국인 매수세 재개와 함께 현물과 선물가격의 베이스가 재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수급적 뒷받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최근 주식시장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유럽 리스크 완화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일로 예정된 유로존 재무장관회담에서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이 승인될지 여부가 주요 포인트다. 일단 그리스가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제시한 2차 구제금융 지원 조건 세 가지를 사실상 충족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제금융 승인 가능성이 높을 상태다. 그것은 3억 2500만 유로의 재정지출 추가 감축, 재정 긴축안의 의회 승인, 그리스 3당 대표의 긴축안 실행 서면 약속이다. 이 경우 민간채권단과의 국제교환협상도 순조롭게 마무리되면서 그리스의 디플트 우려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면 유럽사태는 29일 유럽중앙은행의 2차 LTRO 시행과 3월 초 EU 신재정협약 체결 등이 이어지면서 오렌만엔 안정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은 잠시 주춤했던 경제지표가 다시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가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제조업 경기의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주간 실업수급 신청건수도 2008년 3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1월 주택착공건수도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10% 넘겨 넘겨놓고 있고, 나스닥지수 역시 11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주요 지수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미국경제의 견조함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나아가 글로벌 투자자금의 위험자산 선호도와 주식시장의 상승흐름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KOSDAQ지수의 경우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로 오르며 중기 박스권 돌파 시도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중기적인 가격 메리트와 차별적인 이익 모멘텀,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데다, 최근 나스닥지수의 장기 박스권 돌파 흐름 등으로 역시 활발한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

다만, KOSPI와 KOSDAQ 시장이 각각 주요 매출 대 및 저항선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4/4분기 실적부진에 따른 실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업종 및 종목별 대응에 있어 선택적인 매매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KOSPI시장의 경우 하드웨어, 증권, 호텔·레저, 유통, 에너지, 무역, 운송 등의 업종이 실적과 수급 측면에서 유망해 보이며, KOSDAQ시장은 반도체, IT부품, 기계장비 위주의 접근이 좋을 보인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 車 손해율 '뚝'...보험료 내리나

### 1월달 전월 대비 5%p 내린 74%대

지난달 한파가 기승을 부렸음에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낮아져 손해보험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1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4%대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의 79.1%에 비해 5% 포인트나 감소했다. 2011년 1월 손해율은 83.5%였다.

지난 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9월의 74.1% 이래 가장 낮다. 손해율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76.8%, 12월에 79.1%로 상승세를 보였다.

동부화재의 손해율이 70.8%로 가장 낮았다. 그다음은 삼성화재(72.5%), 현대해상(73.5%), LG손보(74.0%), 롯데손보(74.2%), 메리츠화재(75.8%), AXA다이렉트(76.8%), 테케이손보(77.0%), 그

린손보(78.3%), 하이카다이렉트(78.9%), 흥국화재(79.0%) 순이었다.

최근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검토 중인 업계 1위 삼성화재의 손해율은 지난해 12월 76.0%에서 72.5%로 호전됐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고객이나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이다.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보험사의 적자는 커지고 지나치게 상승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수익구조를 보면 오프라인 대형 손보사의 손해율이 70~72%, 온라인 손보사는 76% 정도 되어 적자를 면한다.

2011회계연도 3분기까지 손보사들이 1조원을 넘는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대부분 자산운용에 의한 것이며 자동차보험은 수권여원의 적자를 냈다.

연합뉴스



스카프에 먼저 온 봄

19일 광주신세계 지하 1층 패션스트리트 매장에서 여성 고객이 스카프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3월은 '공채 시즌'

### 30대 그룹 전년보다 2.2% 늘어 삼성 등 시작...고졸공채도 주목

주요 대기업들이 본격적인 채용 시즌에 돌입한다. 올해 30대 그룹의 신규 채용 규모는 작년보다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공채도 신선했다 등 고용 시장이 한결 넓어질 전망이다.

삼성그룹은 올해 2만1000명의 신입사원과 5000명의 경력직을 각각 뽑는다. 2만6000명 가운데에는 대졸자와 고졸자가 각각 9000명이고, 전문대졸은 3000명, 경력직은 5000명이다. 상반기 합격자는 4월 말에 발표되며, 하반기 공채 접수는 9월에 시작된다.

현대차그룹은 7500여명을 선발, 4~5

월께 상반기 채용을 진행한다. 특히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우선 선발, 단계별 집중 교육을 통해 현대차의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SK는 3월 셋째주부터 대졸 신입과 인턴사원을 뽑는 절차에 들어간다. 작년(5000명)보다 40% 늘려 올해 총 7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중 2100명을 고졸 출신으로 선발한다.

올해 1만5000명을 채용할 LG는 상반기에 9800명을 새 식구로 맞는다. 채용 규모는 대졸자 7500명(신입 6000명, 경력 1500명), 기능직(고졸 및 전문대) 7500명

이다.

롯데그룹은 4월초부터 상반기 공채에 들어간다. 상반기에는 신입사원 공채와 인턴사원을 합해 1700명을 선발하고, 전문대·고졸 사원 등으로 4400명을 뽑는 등 61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대졸 3600명, 고졸 3100명 등 총 6700명을 뽑을 예정이며 상반기 공채는 3월 중순부터 진행된다.

한화도 상반기 대졸 및 고졸 채용을 3월부터 시작해 모두 6150명을 뽑는다.

신세계그룹은 4~5월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각각 4000여명씩 선발한다. <연합뉴스

## 미용료 담합 전남 8개 사업자단체 적발

지난해 미용요금 인상을 담합한 전남 지역 8개 사업자단체가 적발됐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23일까지 미용관련 사업자단체(협회) 및 사업자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미용요금 담합을 주도한 8개 사업자단체를 적발, 시정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단체는 (사)대한미용사회, 전남군지부와 순천 조례동공당구역, 광양구역, 여수 신기동B구역, 여수 학동A구역, 여수 학동C구역, 여수 교동A구역, 여수

선원동구역 등 8곳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 협회 사무실 또는 회원 사업장에서 월례회의, 구역회의 등을 통해 종전보다 일제히 약 20%의 요금을 인상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단체와 사업자들이 담합을 파기하고 종전 요금으로 환원하는 등 스스로 시정을 한 점을 고려해 이면에 한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 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기술후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X 핀X

2011년 신제품

50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민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

친환경 2012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끊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 누전요금미 걱정인 곳
-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절감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신청안내

신청하신 주택에 태양광발전 설치를 해주시면 신청하신 주택에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화 주시면 태양광 전문가가 직접 전화후 방문상담하여 일주일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용량(설치용량)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 요금
8만원 (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00원
15만원 (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062-512-1180 / H.P 011-659-7001